



心  
實  
愛  
世  
攝  
信  
慈  
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58. 10 15 등록번호 (시)라-80호·월간·비매품

# 東友會報

1992年(檀紀4325年)9月29日 第159號(1)

哲正魯  
在秀榮  
鄭張金  
人印人  
行印人  
發印人  
申印人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733-39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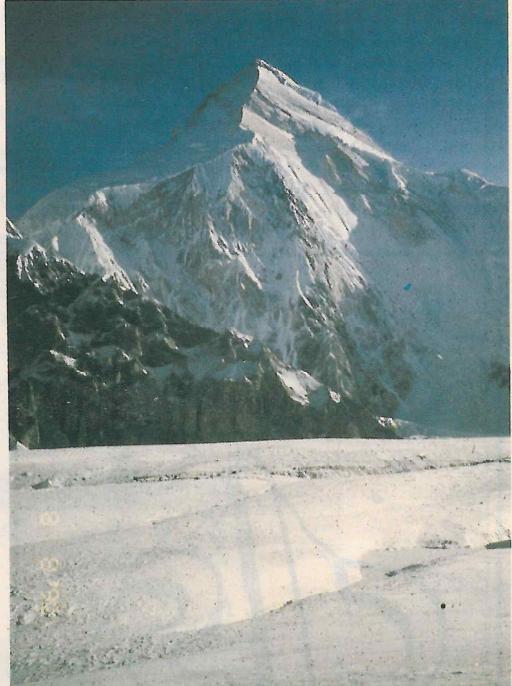
FAX: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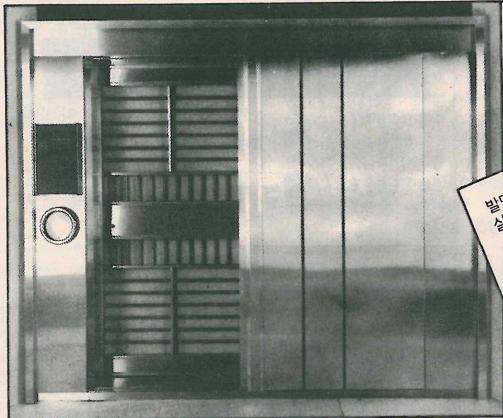
은행지로번호 7500891

# 天山高峰에 東國이 섰다

東國山岳會 6시간 死闘 끝에 칸덴그리峰 征服



▲ 92년 천산산맥국제캠프에 참가한 東國山岳會는 지난 8월 8일 國內최초로 칸덴그리봉을 정복했다. 사진⑥는 정상에선 안전섬대원과 ⑦칸덴그리봉의 웅장한 모습.



유압전동식 슬라이딩 콤비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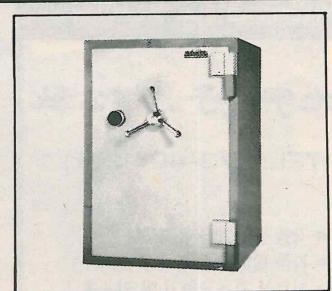
代를 이은 匠人の名品!

국내최초 마크획득



- 금고실금고비, 서고비
- 내화금고, 초강력금고
- 컴퓨터필름 보관용금고
- 대여금고, 총기보관금고
- 철제서가 제작수리

副社長 金 尖 鍾 (73·정외)



We begin 1932.

**aida**  
신성금고제작소

本 事 告 : 267-9680~1  
267-9456, 277-2585  
直 营 店 告 : 275-3419, 3426  
公 告 : (033) 63-0030~2  
F A X : (02) 274-5288

# 東國山岳部 칸덴그리 峰 정복

## 90년 코뮤니즘峰에 등정에 이은 快舉



▲ 사진은 하산도중 독립국가연합 등반대와 함께 찍은 모습

東國의 이름이 독립국가연합(CIS)의 최고 美峰 칸데그리峰(7,010m)에 새겨졌다.

CIS와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천산산맥에서 열린 92 천산산맥 국제케이프에 참가한 박영석(91체교), 김덕환(91체교), 안진섭(체교3인)君 등 3명의 원정대는 눈사태와 불순한 기후, 혼란한 암벽의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 팀 중 첫 등정성공이라는 끽거리를 이룩했다.

지난 7월17일 서울을 출발한 원정대는 18일 현지에 도착 고소순옹훈련을 실시한 후 20일 베이스캠프(B·C)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등반에 나섰다.

5,300m지점에서 박영석 대장이 눈사태로 파묻히는 난관에 봉착했으나 이웃한 CIS등반대의 도움으로 구출되기도 했으며 1차 정상도 전에 나선 안진섭대원이 고 소중세를 보여 실패하였으나 東國人 특유의 투혼을 떨

휘, 6시간 30분의 사투끝에 끝내 정상을 밟은 것이다.

하산도중 정상았지부근에서 사방한 CIS등반대원의 시신을 하산시키는데 한 끝을 한 이들의 등정은 그 동안 꾸준한 해외등반으로 친숙한 가스미공국의 발리예프산악연맹회장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천산산맥 국제케이프는 카즈 백공국의 주권하에 헤체 시즌동안 각국의 산악인들로 하여 自國의 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천산산맥서면에 위치한 최고의 美峰인 칸데그리를 개방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참가해 왔으나 아직 정상을 밟은 팀은 없었다.

故 金東英 동문 추도식  
故 金東英 동문 추도식  
부회장(60경제·주택은행장)을 비롯한 회장단, 운영위원, 임원 등과 국회관계자, 거창군민 등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임숙희 거행됐다.

지난 8월19일 향년57세로 별세한 故 金東英 등문은 9代, 10代, 12代, 13代 등 4회 의원을 거쳤으며 이른바 5·17 이후 정치구제 때 民推協의 결성에 기여했으며 85년 신민당의 원내 총무와 3당통합뒤 민자당의 원내총무를 거쳐 정무제1장관직을 수행한 큰 죽적을 남긴 정치인으로 평소 母校와 本會 발전에 전력해왔다.

◀ 사진은 묘비 제막식 광경

## 故 李來秀동문 文學碑 건립

보교강단에서 국문학을 강의하다 지난 90년 8월 뇌출증으로 태계한 故 李來秀동문

(76대우)의 文學碑가 李동문의 묘소인근에 충남 태안군 태안면 남기리에 세워졌다.

79년 현대문학사를 통해 평론가로 등단한 후 학창양성과 왕성한 비평활동으로 채만식 연구의 독보적 존재로 알려진 李동문이 태계한 후 李동문의 문학사적업적을 기리기 위해 풍요·향노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오출세교교수)를 결성하고 문학비건립의 성과를 보인 것이다.

李동문의 문학비 건립식과 추도식은 지난 20일 많은 동료 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열렸다.

## 東岳會, 정기모임

마산지역동문포럼인 東岳會(회장=정민용·49사학)는 지난달 12일 同會 회원인 김용수(70경제) 등문이 경영하는 동문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현재 보유증인 5백만원을年内 1천만원으로 확충시키는 등이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 부산支部 사무실 마련

부산지부동창회(회장=金吉丁·56경제)는 최근 同會 회장인 金吉丁·동문의 빌딩에 동창회사무실을 마련하고 기금적립에 나서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다.

## 東友漫評 鄭雲耕



###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 批字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응용

대표 趙椿煥 (74경영)

종구 을지로 4가 315-1 푸른BD 510호

會費·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조화환·화분, 동·서 양난 <도매가  
격 판매 전문업체> 한통화의 전화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  
히 배달해 드립니다. • 정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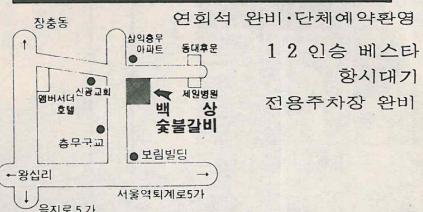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  
진로유통·꽃도매상가

TEL. (대) 521-3900  
(야) 521-3838

서 일 화 원  
김 인 택

“東國人 여러분을 정성으로 모십니다”

## 전통 숯불갈비 전문



## 전통 백상 숯불 갈비

예약전화 273-39959~60

東岳의 휴식처

## 東大百象의 집

전화 265-6361

대표 김철규(86경원)

# '新羅가요연구'등 도서 7천권 寄贈

## 崔鶴璇·崔範勳동문 유족 “故人유지 받들어”



지난  
 4월  
 세하 故  
 崔鶴璇  
(前교  
 교수 51  
 국문) 동

문과 故崔範勳(61국문·前교  
 교수) 동문의 유가족들이 각각 5백여권과 7천여권의 귀중한 장서를 모교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崔鶴璇동문은 '신라가요연  
 구'外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5

비여권을 기증했으며 선전에 유명한 도서에 장가했던 崔範  
 勳(61국문·前교  
 교수 51  
 국문) 등

유가족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故의 유지를 빌들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91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신입회원 571명 맞아

교과 91학년도 후기 학위수  
 여식이 지난 28일 서울캠퍼스

중간당과 20일 경주캠퍼스 소  
 강당에서 각각 거행되어 박사  
 31명과 석사 178명(연구과리과  
 정 187명, 학사 175명 등) 총 571  
 명의 신입회원을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학사보고, 학  
 위수여, 졸업식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석·박사 명단 7면)

「禪과 東方文化」發刊

中國 佛經大와 공동으로

母校와 中國佛經大가 지난  
 90년부터 주진해도 불교학술  
 교류의 성과로 「禪과 東方文化」라는 논문집이 내년 4월경  
 발간된다.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대에서 열린 제4차 조선  
 학 국제학술토론회 참석차 북  
 경대를 방문한 吳亨相(64불  
 교·불대교수) 등문이 계선남  
 前북경대총장으로부터 91년의  
 논문을 전달받았으며 모교교  
 수 10여명의 논문과 중국학자  
 의 논문 2편이 완성되는 대로  
 발간될 예정이다.

또 논문집발간후 중국측 필  
 자 몇 명을 초청해 한중불교학  
 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 93년 新入生 120명 增員 정보관리, 전산통계학과 新設

교과의 93년도 신입생 정원  
 이 2개학과 70명의 신설과 전  
 기전자·화학공학계열의 증원  
 으로 총 120명이 증원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산업체 고급인력 수급을 위한  
 첨단이공계열학교 정원을 대  
 폭 증원한다는 산업인력양성  
 우선정책에 따라 이뤄진것으  
 로 모교는 서울 캠퍼스 정보관  
 리학과 약간 30명, 경주캠퍼스

전산통계학과 40명이 신설,  
 증원됐다.

또한 정원증원에 따라 서울  
 캠퍼스의 전기전자 계열 30  
 명, 화학공학 계열 20명이 증  
 가되었으며 경주캠퍼스 정보관  
 리학과는 정보산업학과로 개  
 칭된다.

한편 대학원 정원도 1백명  
 증원되었으며 대학원 한문화  
 과 석사과정이 신설됐다.

## 母校 학·처장급 인사개편

교과당국은 지난 1일자로 서  
 울캠퍼스 기획조정실장에 俞  
 光震(정치외교학) 교수를 임명  
 하는등 일부보직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번에 개편된 보  
 직인사이동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학장=李永子(불  
 교학) △기획조정실장=俞光  
 震(정치외교학) △교무처장  
 =鄭炳南(국민윤리학) △학  
 생처장=崔淳烈(국어교육)  
 △총무처장=許天澤(영문학)  
 △관리처장=閔泰鎮(화학)  
 △교무처 학술부장=洪永植  
(컴퓨터공학) △전지계산소장  
 =李金石(컴퓨터공학) △생  
 명과학 연구소장=尹柱億 △

학생생활 연구소장=金宗煥  
(지리교육) △산업기술대학원  
 교학부장=李鎮九(전자공학)  
 △동대신문 편집인겸 주간=車  
 車壽連(경영학)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주간=趙儀衡(영  
 문학)

評論으로 정식登檀

이용호同門

이용호(92국교) 등문이 '폐  
 허에서 꿈꾸기—기형도론  
 정립을 위하여'라는 평론으로  
 '문화공간' 9월호를 통해 문단  
 에 등단했다.

## 總同窓會의

##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韓國 철인3종경기 연맹 會長  
 韓國 테프론공업(주) 代表理事  
 洪錫橋 (65년 정치과)

## 故 金東英 兄을 그리며

兄이 우리들의 결을 떠난지  
 도 벌써 1년이 되었으니다.  
 우리가 학생시절 민주화를  
 꿈꾸며 신념을 키우던 그때,  
兄과 함께 학교 및산에서 미  
 래를 설계하며 웃었던 시절이  
 엇그제처럼 스쳐가는 지금 이  
 제兄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  
 봐도兄의 목소리를 영영 들  
 을 수 없게 되었지만,兄의 강  
 직하고 의연하던 자세와 그 온  
 긍하고 친근하던 웃음은 아직  
 도兄이 우리 결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나지 않게 합니다.

정치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  
 한 길이기며 너는 정치에 입문  
 하지 말고 너대로의 길을 가라  
 며 피로운 충고를 하던, 그리고  
 자신이 모시는 그분이 뜻을  
 이루 수만 있다면 자신의 존재  
 는 사라져도 좋다며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들은 일선에  
 서 물러나 신종고·물종은 형의  
 고향 거창에서에서 고기나 잡으며  
 조용히 살지던 그 끝없는 의리  
 가 바로 오늘 아침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귀모술수가 횡행하던 정계  
 에 투신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죽어 다니는 소인배  
 들과는 달리 지난 80년에는 끝  
 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강제적  
 으로 정치무대에서 퇴장당한  
 뒤,兄은 건강부터 지키라는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분해된  
 자신을 주스르고 재조립하기  
 위해 산을 찾기 시작했고, 그

렇게 시작한 등산이 民主山岳  
 도 이어져 民推協·新民黨  
 으로 발전되어 지금의 전국적  
 인 민주화 조직으로 성장하는  
 데 기틀을 다지는 등 그 어려  
 운 아당세상을 마다하지 않고  
 한평생을 걸었던兄을 생각하  
 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제兄의 30년 민주화투쟁

이 초성되어 이 나라 민주

주의가 활짝 꽂을 때가 됐습니다.

兄이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그분

의 뜻이 이제 마지막 어려워지려

고하고 있는데,兄은 왜 그리

급한 길을 가셨습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가야할  
 길. 東英兄을 따라 우리 모두  
 가 언젠가 그 길을 사귄지만  
兄과의 이별은兄이 가던 그  
 날처럼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  
 에 큰 구멍을 남기고 맙았습니다.

그렇지만兄을 보면 우리  
 들 모두는兄의 빛나리를兄  
 의 뜻처럼이나마 민주주의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노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불곰 그림 편안히 쉬시게

金在基

<60경제·주택은행장>

편집자註. 이내용은 金東  
 英동문의 1주기를 맞아 서울  
 신문에 게재되었던 金在基동  
 문의 주모사를 전제한 것이다.

## 2학기, 신규교수 20명 채용

### 서울캠퍼스 9명, 경주캠퍼스 11명

교과당국은 서울과 경주캠  
 퍼스의 2학기 신규교수 총 20  
 명을 채용했다.

이번신규교수가 채용된 科  
 는 지난학기 신설된 기계공학  
 과를 비롯해 13개과 20명으로  
 서울캠퍼스는 스기사와 이즈  
 미(일문), 신동혁(물리) 황대  
 성(물리), 이윤근(경행) 원치  
 선(전자공), 변기홍(기계공)  
 이승주(식품공) 박부진(교육  
 학) 맹동우(영역) 교수등 9명  
 이며 경주캠퍼스는 이봉준(불  
 교) 김복순(국사) 장성재(철  
 교) 김복순(국사) 장성재(철

학) 이연환(기초과정) 교수등  
 과 의과대학 초빙교수인 김용  
 철, 윤혜원, 이현경, 김상범,  
 성열오, 이경윤, 김선아교수  
 등 11명이다.

제11채 보유편 1권 刊

佛教全書 2차시작 일환

교과 대학교교전서편찬위원  
 회는 지난 89년 韓國佛教全書  
 전 10권을 완간한데 이어 2차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불교전  
 서 제11책 보유편 1권을 간행

했다.

이 보유편 1권에서는 앞선  
 전 10책에 수록되지 못한 새로  
 운 자료와 편찬실 사정으로 미  
 름되었던 자료를 모아 신라, 고  
 려, 조선 3기로 나눠 신기되며  
 구한말의 자료도 일부 삽입되  
 어 있다.

ROTC 5期會 모임

ROTC 5期會 (회장=김승  
 유·67정외)는 지난 28일 만  
 강홍에서 금년도 세번째 모임  
 을 갖고 친목을 다졌다.

同會는 지난 7월9일 회원  
 인 김학수동문의 모친 팔순잔  
 치에도 남다른 동문애를 보였  
 었다.

## 人事 을립니다

그동안 동문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었던  
 격려와 성원의 덕분으로 92년 8월 21일 부천 중부영업소장  
 으로 부임하게 되었음을 인사드리며 좀더 큼브모의 지통  
 차를 대상으로 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저의 소식을  
 전해 올리게 되어 동문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그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업체의 세련된 사장으로부  
 터 한적한 시골마을의 소박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분들  
 과의 인간적인 만남에서 들었던 훌륭하신 풍고, 서운하기  
 까지했던 매운은 비판, 그리고 신바람 났던 격려, 이  
 모든것들은 저와 대우자동차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소중  
 한 체험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원과 격려의 채찍질을  
 거듭 부탁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관심속에서 성장하고 싶습  
 니다.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과 만나길 기대합니다.

대우자동차 부천중부영업소

소장 인 흥 련  
(76. 무역학과)

TEL (032) 612-1731~8  
 자택 (032) 547-1407

# 民自, 상무위의장 鄭在哲회장

## 東國發展 구심인 금융通 3選



▲鄭在哲本會會長  
(52·정체·국회의원) 이  
지난 8월  
29일 民  
主自由黨 常任委員會 議長에

선임됐다.

本會會長으로 東國發展의 구심이 되어온 鄭 회장은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산업은행 부총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일은행장, 산업은행 이사장과 국회 재무·예결위원회, 정무1차관등의 의장을 두루 거친 재정금융通 3選의원이다.

## 美國서 身病치료

徐廷柱동문



▲徐廷柱동문  
(35·中  
 불)이 최근  
 미국의 아  
 들집에 머  
 물면서 신  
 병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지난 7월 러시아로 유학을 떠

났던 徐동문은 그동안 모스크

바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일타미아에 머물다가 병이나서

미국의 아들집으로 건너가 치

료를 받고 있다는 것.

## 中國서 書法展 개최

金膺顯동문



▲金膺顯  
顯(49· 전  
문) 동문이  
10월 4일 중  
국 西安과  
12월 12일  
上海에서

서예전을 열기 위해 9월 29일 출  
국했다.

金膺顯은 지난해에도 조선일  
보 미술관에서 5서체의 한문서  
에 작품들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 「現代都市록」國內발간

李哲範동문



▲李哲  
範(50전  
문· 문학  
평론가 ·  
시인) 동문  
이 그동안  
미국과 일  
본의 역사비판지에 발표해온  
長詩 「현대복시록」의 국내 발간  
을 위해 지난 18일 일시 귀국했  
다.

李동문은 81년 渡美이전까  
지 경향서울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고 보교와 이화여대에서  
현대문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 대한투금 副會長

李鍾萬동문



▲李鍾  
萬(53경  
제·本會  
상무이사)  
동문이 지  
난 8월 27일  
자로 대한  
투자금융(주) 대표이사에서 부  
회장으로 영전했다.

李동문은 30여년간 조흥은행  
의 일선지점장과 영업부장, 상  
무이사장을 모두 거친후 지난  
82년 대한투자금융 부사장에

승진되었다.

취임, 10년만에 부회장에 올랐  
으며 東國발전에 적극 동참해  
온 정통 금융인이다.

## 回甲논문 奉呈

金炯秀동문



▲金炯  
秀(58국  
문· 모교  
교수) 동문  
은 지난 27  
일 오후 1  
시 대구 파  
크호텔에서 화감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가졌다.

## IMF總會 참석

金在基동문

▲金在  
基(60경  
제·本會  
부회장 ·  
주택은행  
장) 동문은  
美國의 연  
상단에서 개최된 IMF(국제통  
화기금) 총회에 참석하고 24일  
귀국했다.

## 教保문고(주) 理事

張根鎮동문



▲張根  
鎮(63상  
학· 본회  
이사) 동문  
이 교보문  
고 사옥판  
리(주) 총  
무부에서 교보문고 이사로  
승진되었다.

## 北韓불교도 招請

李茂雄동문



▲李茂  
雄동문(67  
불교· 한  
국불교종  
단협의회  
사무총장)  
은 지난 3  
~12일 일본을 방문, 在일본은  
선불교도協· 홍봉수회장을 통해  
조선불교연맹 박태호위원장

▲박종우(58경제) = 1

▲최인현( 물리) = 1

▲이경우( 69행정) = 1

▲정기운( 68생화) = 1

▲김정우( 69화학) = 1

▲김경우( 67화학) = 1

▲김기용( 67화학) = 1

▲김병우( 69응용) = 1

▲이인숙( 63화학) = 1

▲이성우( 61화학) = 1

▲이경우( 67화학) = 1

▲김기용( 67화학) = 1

▲김경우( 67화학) = 1

▲김기용( 67화학) = 1

▲李應皓(71경제) = 주택은행 범일동 지점장으로

▲金基洙(71경제) = 한일은행 부산 남부민동 지점장으로

▲인홍렬(76무역) = 대우자, 통차 부천 중부영업소장으로

(서울 신문)

▲崔榮漢(71정외) = 사업국 특수사업부장으로

(한국농업신문사)

▲吳柱慶(61정외) = 편집담당

▲李義錫(66정외) = 부사장 겸 주필

(수출입은행)

▲진병석(80경제) = 선박금융부에서 자금부 과장으로

▲방두훈(81경제) = 수입금융부에서 산업설비금융부 과장으로

▲황준하(83무역) = 경협부에서 국제금융부로

▲김진태(86경영) = 해외조산부에서 전대금융실로

회서 장녀결혼

▲鄭賢鈞(79사회) = 9월 0일 오전 12시 대전시 선화동 강변식당에서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

## 計音

洪淳池동문 별세



▲洪淳池(52정 외·본회 운영위 원·페시 퍼스트풀즈 대표이

사) 동문이 지난 17일 별세했다.

洪淳池은 본회 운영위원회로母校 및 본회发展에 공헌을 해왔다.

▲張忠準(61경제·본회 이사·민주당사무부총장) 동문이 지난 11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張淳池은 舊신민당중앙상무위원회 부위원장장을 역임했고 평민당 대통령선거대책위동원 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12대 국회의원을 거친 애당인이다.

▲白南吉(49문화) = 8월 9일 별세

▲韓東根(58경제·태평양 화학사장) = 8월 1일 상오 9시 경기도 안양시 광양동 현대아파트지자식에서 사망

▲朴柱寅(59법학) = 8월 16일 상오 10시 전남 순천시 순천면에서 모친상

▲柳在川(60경제·경기 구리시장) = 8월 16일 상오 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모친상

▲李和一(65상학·본회부회장) = 9월 29일 빙부상

▲權五甲(60농경·본회이사) = 8월 15일 부친상

▲尹天泳(66농학) = 시난 13일 빙보상

▲張用皓(66농학) = 8월 13일 부친상

▲安正熙(81행원·파주경찰서장) = 8월 12일 하오 5시 20분쯤 MBC 토요일 저녁 8시 20분쯤 'MBC 토요일 저녁 8시 20분쯤' 출연자로 활동하는 고령의 고모를 만나고 영업 확장을 기하고 있다.

10만명의 실학민이 소액주주가 되어 설립된 동화은행은 국내외에 58개의 점포를 갖고 있으며 꾸준한 영업 확장을 기하고 있다.

▲8월 12일에 개점했는데 그 동안 느낀점은...

- 하루에 약 20여명 내외의 고객을 만나는데 시내교통 등의 문제로 더많은 고객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렵고 아쉬운 점이다. 이동중에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데 아마 전화비를 나마름 많이 내는 사람도 드물겁니

70年代 중반 美國의 한 해 병대원에 의해 시작되었던 鐵人경기(Triathlon)는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달리는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지난 9월 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철인3종경기연맹 총회와 92캐나다선수권전에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했던 洪錫



橋(65정치·한국철인경기연맹 회장) 동문을 만나 보았다.

▲참가 성적은...

-국기대표급 선수가 아니었고 시차관계가 있어 저조한 편이었다. 국내에는 87년부터



오전 4시30분 자리에서 일어나 인근 용마산 등산, 정상에서 운동을 마치고 간단한 식사 후 출근 조건문 구독후 8시 40분 제작자 회의. 9시 15분부터 오후 3~4시까지는 고객유치를 위한 거래처 방문, 오후 6시까지는 사무실 인근의 고객 유치 활동, 7시 30분까지 당일 업무와 구수회의, 퇴근후 다시 고객회, 늦은 밤 귀가.

이것은 요즈음 李殷甲(74 경영·동화은행 압구정동 지점장) 동문의 하루일과표를 풀어놓은 것이다.

10만명의 실학민이 소액주주가 되어 설립된 동화은행은 국내외에 58개의 점포를 갖고 있으며 꾸준한 영업 확장을 기하고 있다.

▲8월 12일에 개점했는데 그 동안 느낀점은...

- 하루에 약 20여명 내외의 고객을 만나는데 시내교통 등의 문제로 더많은 고객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렵고 아쉬운 점이다. 이동중에 카페를 많이 찾는다는데 아마 전화비를 나마름 많이 내는 사람도 드물겁니

라. (특히 캐나다 근무시절 도움 주신 캐나다동문들께)

본회이사인 李殷甲은 고향

인 長江의 한국인학교 무료급식과 노인정 건립에 기여하는

동 알려지지 않은 선행을 펴고 있으며 74년 한일은행 입행을

시작으로 본회정재철회장의 한일은행장시절 비서실에 근무했으며, 4년간 한일은 캐나다토론토지점 대리, 부평지점 차장등을 거쳐 89년부터 同化

은행에서 근무해 왔다. (지침 연락전화 516-3181)

## 鐵人경기는 生活체육이죠

### 鐵人경聯 會長

소개되어 선수들이 넓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철인경기란...

-수영(1.5km, 3.9km)과 싸이클(40km, 180, 2km), 그리고 마라톤(10km, 42, 195km)을 연 이어 펼치는 것인데 도전과 인내를 키우는 생활체육인데 자금과 시간소요의 난점으로 저변확대에애로가 있다. 학교 체육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렇다.

▲언제부터 연맹을 맡았는지 또 서면화내 세회과 세계적 추세는 어떻게...

-96년 애틀란타올림픽 시범 종목이라 추후 정식경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 각국이 집중육성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국제대회에 250여명이 참가했고 또 93년

### 洪錫橋동문

월드컵경기를 유치할 계획인데 생활체육과 함께 학교체육으로 대학팀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지난 88년부터 연맹회장을 맡아왔다.

▲앞으로 목표는...

-전진한 레제스포츠로 국민체력증강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洪錫橋은 學窓시절부터 대권도, 스키등을 즐기는 스포츠맨으로 한국메프콘공업(주) 대표이사와 장애자협회 후원 회장, 종소기업경영자 협회부회장, 민족연 사회복지분과 위원장을 맡고있으며 자신의 회사를 유랑중소기업으로 키우고 本회이사로 母校발전에 적극 동참해온 열정적인 東國人이다.

## 同化銀行으로 오십시오

### 발로뛰는 압구정支店長 李殷甲동문

다. ▲경재가 불황인데 시중돈 흐름은...

-아무래도 현대인은 財테크에 밟아 제2금융권으로 물리는 경향이 있으나 각은행들의 고급리단기상품개발과 '평생 킴' 등 신진기법의 실시와 함께 單行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설명과 애로사항 해결등 짚들은 서비스로 고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털리 하실 말씀은...

-입구정동뿐만은 아니지만 고객유치가 역시 힘드는데 동문들이 서로로서 돋고가는 (특히 고객정보) 풋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한된 숟가락을 나눠다 옆심히 산다는 것을 좌우명상아 다른 이들과의 인연을 중시한다.

지난번 개점때 미처 인사드리지 못한 주변 선·후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



## 移轉·開業

▲金允植(61경제) · 李賢贊(61경제) 동문은 (주) 전진공을 설립하고 지난 28일 양재동 소재 사무실에서 개업식을 가졌다. TEL : 579-6816~7

▲慎秀吉(67경제·본회이사·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이사) = 한독약품 회사로 다음과 같이 이전. 우편번호: 135-081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5 TEL : 527-5114

▲慶奎明(67경제·한국주식은행 개봉동 출장소장) = 지난 달 13일 오후 9시 한국주택은행 개봉동 출장소 개점식.

▲申益炫(72경영·본회이사) = 죽전(주) 동국항공을 설립하고 국내외 여행업무를 시작했다. TEL 725-4444 FAX 725-7676

▲李殷甲(74경영·본회이사·동화은행 압구정동 지점장) = 지난 달 12일 오후 8시 30분 동화은행 압구정동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 結婚

▲李慶純(64법학) = 9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차녀 결혼

▲박재수(67행정) =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 장충성결교

## 財團法人 大韓佛教觀音宗

서울·종로구 승인동 178-3 TEL:(02)763-3109, 3345 FAX:(02)763-5851

院 教育院	護法院	副議長	宗會	監察部長	社會部長	財務部長	教務部長	總務部長	院 總務院	元老院	司事室
長 教育院長	長 護法院院長	長 副議長	長 宗會長	長 監察部長	長 社會部長	長 財務部長	長 教務部長	長 總務部長	長 總務院長	長 元老院長	長 司事室長
金 茲	芮 春	申 無	鄭 法	全 曜	柳 鏡	金 鏡	黃 法	金 智	李 波	李 懿	金 勝
東 華	華 潭	申 本	鄭 輓	監 瞳	社 會	財 務	教 務	總 紡	元 雄	元 懿	金 哲
靈 頂	輪	輪	輪	部 長	部 長	部 長	部 長	部 長	院 長	院 長	哲 哲

宗 正 金 大 天

# 나의 學 留 時 節



金三龍

들이 은연중 젊은 내마음속에  
삶의 자양분으로 충전되어 오  
들의 인생길을 가다듬게 했을  
것이다.

당시 불교대학 학장은 조명기  
박사였다. 불교에 관한 해박한  
식견의 스승이셨고 불교신  
행에 있어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학자이셨다. 후일 말년에  
필자에게 봉직하는 대학에도  
출강하여 후진 양성에 열성을  
쏟으셨던 大學者이셨다. 모두  
깊이 따르고 마음으로 들었이  
모셔야 할 귀하신 스승이시다.

특히 조명기 박사님의 실천  
궁행하시는 깊으신 佛心은 필  
자는 물론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히 어려운이시다.  
지금은 모두 다시 뵐수 없는  
어른들이어서 그점이 서운하  
고 허망하다. 학교일의 막중  
함못지않게 난마처럼 얹힌 문

▲25년생

▲56년 모교불교학과 졸업

▲84년 日, TSUBAKI大  
文 化 博 士

▲86년~현재 원광大 총장

침하고 한다.

한 대학의 최고 경영 관리  
책임을 걸어진 지금, 크고 작  
은 일들로 학생들과 직접 면대  
하여 학인들을 협의할 때가 많  
다. 그런 자리에서 항상 느끼  
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나 바램  
사항이 매우 단시안적이라는  
데 놀라울 뿐이다. 한 대학이 40  
년을 넘도록 수 많은 졸업생의  
부영의 유산이 전통으로 규범  
으로 자리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즈음 학생들은 한사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의면하려  
든다. 낡은 전통이 모두 버려  
야 할 폐물일 수는 없을 것이다.

불교대학의 전통위에 오늘  
의 위용을 쌓아온 모교가 지금  
은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50년대의 대학생이 90년대  
에 한 대학의 관리 총책임 입  
장에서 대학시설을 회고하는



▲在學時의 수많은 명교수들로부터 받은 강의는 내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사진은 50년대 모의형시재판 광경.

적은 영원한 것이다. 생각할  
수록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그  
젊은 교수의 말대로 외국에 나  
가 오래 살다보면, 또는 이번  
을 하든, 망명을 하든, 어쨌든  
국적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학적은 바꾸는 것은 쉽지 않  
다. 출신 학적이 쉽으면 그때  
부터 다른 대학을 다시 다녀야  
새로운 하처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얻은 학적이  
싫다고 새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국적 변경보다도 훨씬 어  
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재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학업에  
전공영역외에도 자신할만한  
특기 하나씩을 가꾸어 나가는  
대학생활을 권하는 일이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터를 연  
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보람된 행운일 것이다. 그  
러나 세월이 꼭 그렇듯 순조  
로운 것은 아니다. 의외의 특  
기와 자신의 생활 일터로 연결  
되는 경우를 본 필자는 허디히  
게 보이왔다. 더욱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요즈음  
의 좁은 취업문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을 스스로 지부할 만  
한 특기 하나씩을 가꾸는 것은  
대학생활의 미덕일 것이다.

한 인간의 전 인생에 있어서  
대학시절처럼 귀중한 시기  
도 없을 것이다. 몸은 크게 자  
라 성장으로 대접받으며, 거  
기에 덧붙여서 아직은 스스로  
생활감당을 하지 않아도 좋은  
학생이 아닌가. 부모님의 후  
원속에 오직 자신의 완성을위  
해 갖고 있는데 전력할 수 있  
는 기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대학생의 특권인 것이다. 일  
찍이 산업전선에 투신하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비하면 그들  
보다 4년을 유보받은 대학생  
들이 아말로 그나마 또래의 특  
권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해야할  
몫까지 대신 감당하는 같은 나  
이 또래의 산업역군들을 고려  
해서라도 충실히 대학 생활을  
여러나기로 봄다.

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  
생활일 것이다. 재학생들에게  
모교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학  
적을 두고 있는 대학원이 평생  
을 따라다니는 자신의 신분증  
임을 알면 어쨌든 지금 다니  
는 대학의 학장생활을 열심히  
하여야 할것이다. 젊음은 쉼  
계가 가지만 학업 성취는 멀고  
긴 여정임을 자 학생 후배들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일꾼을 찾을 때 '나  
여기 있노라'하고 뛰쳐나설 수  
있는 東國의 후배가 되기를  
당부해 본다. 그리고 바로 그  
러한 학창의 자세야말로 모교  
를 빛내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  
의 성장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두번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공영역외에도 자신할만한  
특기 하나씩을 가꾸어 나가는  
대학생활을 권하는 일이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터를 연  
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보람된 행운일 것이다. 그  
러나 세월이 꼭 그렇듯 순조  
로운 것은 아니다. 의외의 특  
기와 자신의 생활 일터로 연결  
되는 경우를 본 필자는 허디히  
게 보이왔다. 더욱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요즈음  
의 좁은 취업문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을 스스로 지부할 만  
한 특기 하나씩을 가꾸는 것은  
대학생활의 미덕일 것이다.

한 인간의 전 인생에 있어서  
대학시절처럼 귀중한 시기  
도 없을 것이다. 몸은 크게 자  
라 성장으로 대접받으며, 거  
기에 덧붙여서 아직은 스스로  
생활감당을 하지 않아도 좋은  
학생이 아닌가. 부모님의 후  
원속에 오직 자신의 완성을위  
해 갖고 있는데 전력할 수 있  
는 기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대학생의 특권인 것이다. 일  
찍이 산업전선에 투신하는 수  
많은 젊은이들이 비하면 그들  
보다 4년을 유보받은 대학생  
들이 아말로 그나마 또래의 특  
권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해야할  
몫까지 대신 감당하는 같은 나  
이 또래의 산업역군들을 고려  
해서라도 충실히 대학 생활을  
여러나기로 봄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  
뀔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강조  
하고 당부한다. 대학생활에  
충실할 것을…

## 名教授 名講議 내게 있어 삶의 滋養分 傳統은 無形의 遺產, 後學들이 키우길

제들로 헌이 들때면 조용히 옛  
일을 생각하며 그 어른의 '마  
음씀(心法)'을 상기해 보곤한  
다. 먹고 있는 것은 비록 누주  
하고 주린 시절이었으나 고마  
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접할수  
있었던 시절이어서 정신적 풍  
요만은 그 어느때보다도 각  
별하고 뿌듯한 것�이었다. 새  
삼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또  
한 그런 꿈과 분위기는 요  
즈음 대학가에서는 찾아보기  
도, 맞보기도 흐хи 않을 것이다.  
50년대의 어려웠던 시기  
를 견디어야 했던 당시의 대학  
생들이 지금은 사회 도처에서  
중견을 넘어 원로로서 이 사회  
를 굳건히 지탱하는 지지들임  
을 생각할때, 필자는 항상 대  
학은 미래의 주역을 육성하는  
공간임을 스스로 상기하고 다

각회는 난 다르다.

하고 많은 일터들 가운데  
대학에서 평생을 지냈고 인생  
의 마지막을 대학에서 장식하  
게 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무  
한히 영광된 삶으로 생각된다.

항상 서울에 업무관계로 출  
장을 길마다 모교를 먼발치  
로나마 살필 수 있다. 장충단  
공원에서 울울한 숲속에 쌓여  
있는 몇몇 校舍가 우뚝 우뚝  
숲위로 들어나 보인다. 그곳  
을 지날 때마다 옛것을 잡시  
여여보는 것은 필자뿐이겠는  
가. 東國의 문을 거쳐 나간  
모든 동문들이 그런 마음일  
것이다. 모교사랑은 무덤까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봉  
직하는 대학의 한 젊은 교수가  
말했듯 '국적은 바뀌어도 학

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  
생활일 것이다. 재학생들에게  
모교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학  
적을 두고 있는 대학원이 평생  
을 따라다니는 자신의 신분증  
임을 알면 어쨌든 지금 다니  
는 대학의 학장생활을 열심히  
하여야 할것이다. 젊음은 쉼  
계가 가지만 학업 성취는 멀고  
긴 여정임을 자 학생 후배들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일꾼을 찾을 때 '나  
여기 있노라'하고 뛰쳐나설 수  
있는 東國의 후배가 되기를  
당부해 본다. 그리고 바로 그  
러한 학창의 자세야말로 모교  
를 빛내는 일임과 동시에 자신  
의 성장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두번재 당부하고 싶은 것은

## 都成漢醫院

代表 李峻豪  
(舊永根)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7번지

Tel 762-6454

763-3977

766-7797

Fax 743-2893

생일이면 떠오르는....



## 新羅明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 이사 홍평우 (70 경영)

### 東國人을 위한

그랜저 3.0 2.4 2.0  
NEW소나타 2.0 1.8  
엘란트라 1.6 1.5

신차 및 중고차 매매, 이전전담 !

TEL:(주) 274-3103~8

(야) 268-4603

FAX:268-4603

現代自動車

퇴계로영업소

영업차장 柳在善(70농경·ROTC8기)

엑셀1.5 1.3  
스텔라 1.8  
스쿠프 1.5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진출력증가/수명연장

■작동성

현대·대우·기아全車種

## BOSCH SUPER

Co-Electrode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 母校愛 發회는

1萬원의 年會費 납부에서

同門여러분이 내주시는 1만원의 奨學과 本會事  
業의 밀거름이 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 회비 내역 -

○ 일반회비... 1만원 ○ 이사회비... 7만원

○ 감사... 20만원 ○ 상무비... 20만원

○ 지도위원회... 20만원 ○ 부회장... 50만원

○ 회장... 100만원

보내실 곳 : 각은행 지로번호 7500891

우편내체 01238-31-0525667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 고수의 금융상품 안내

□ 시중 실제금리의 증개어음!

□ 자유 CP!

□ 시중 실제금리 반영 CD!

□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수의 CMA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 대표: 허동녕(내거리 대표) 71-9000 투자상담실 777-1461

• 강남영업사무소: 신용증(상자) 02-9569-5000

## 졸업을 축하하고 입회를 환영합니다

91학년도 후기졸업자 명단

### 박사학위

이호근 황종연 송희복 장영우  
정의홍 구사회 최영자 정병모  
임연기 김민수 김선정 전재경  
주원덕 문원식 꽈무설 박병식  
서구아 이성보 선잔의 김고원  
이후석 정천기 정창석 정관희  
백수기 원호군 이민순 이철우  
노정미 박찬부 김진태  
- 이상 31명

### 석사학위

#### 대학원

장정순 이기운 김진태 김은희  
김봉래 조현설 정세영 박상란  
김종진 한홍수 김광석 박미경  
장경경 김호섭 고성만 하경화  
예영주 이기호 허영주 양해식  
임종국 정기환 김종선 송재숙  
김종선 김태선 김승호 황진수  
임성환 김범수 신현종 김미경  
송연재 김동현 김영훈 김종훈  
고팡이 박종숙 장영희 이재국  
이현상 박종범 조세주 최영순  
문현기 김용우 송우섭 박은숙  
윤현경 김동윤 권오성 이지은  
이애경 연주희  
- 이상 54명

#### 행정대학원

김규봉 박근규 윤한구 임정진  
김화진 오화진 최수운 최경식  
서형우 김제국 박연규 김용우  
하재홍 이경환 이윤종 오병홍  
유영대 이규상 이종덕 구자익  
박상우 김정수 김정태  
문병우 황기복 김방우 박동일  
김태건 이문주 유유영 심재용  
고원곤 이상덕 오정희 이승주  
김부식 이상기 김갑순 이선희  
이재희 노경숙  
- 이상 42명

#### 경영대학원

최재원 최광복 배종옥 정환상  
윤새진 진숙잔 박성우 홍성우  
한준우 도중호 박용근 백정순  
하민권 허민영 정웅렬 정찬주  
이종열 이동복 허영복 이석재  
이유희 김인수 김광기 김길래  
이종인 신구현  
- 이상 26명

#### 교육대학원

류상재 유덕진 황영남 심화섭  
조성원 정현모 최세열 최금희  
이주연 최종만 박재원 김경남  
송철운 하준열 김효남 김석관  
이용미 최병문 김희성 임미정  
권유경 지선진 박승억 김영균  
손영민 조덕환 유향현 한정광  
유창현 권영성 이선미 김연희  
박병현 문귀택 이창국 이군재  
심의식 홍정의 허선구 이철우  
이철희 이정임 이주암 이 일  
- 이상 44명

#### 정보산업대학원

김영기 김영익  
- 이상 2명

#### 지역개발대학원

김덕기 백대승 김경호 박영술  
박광수 김광석 손승권 이재익  
최영화 서진기  
- 이상 10명

#### 연구·관리과정

##### 불교대학원

유혜진 박종룡 정광제 최남실  
손성규 손영모 최순자  
- 이상 7명

#### 행정대학원

이현표 이재식 황명식 서인종  
김효범 조성우 구학모 조태학  
박종선 김문자 신재재 김복중  
장준평 윤승문 조순원 이선행  
김종이 김무규 유지홍 배성수  
곽병규 김종훈 김수환 이경순  
임영자 홍복순 최진근 최 화  
이교순 신민성 성서현 조용자  
한명자 이주형 조건제 차상순  
오유근 박장우 이영섭 황갑호  
이상렬 황희원  
- 이상 42명

#### 경영대학원

강정배 구정화 권명옥 김대진  
김정호 양천규 양상규 임충상  
정호진 지정남 하민장 최병근  
박종관 김동명 신기영 유재룡  
김임수 문성기 쟁용현 신동률  
유승호 위영근 이종필 이충근  
김홍기 고종률 곽정석 김동오  
남군우 이용호 김선우 정민수  
서재수 김영길 박종규 이동엽  
조영희 전세준 김효중 박명규  
박무성 양향자 장충남 전우성  
홍점표 김덕수 조영인 유진만  
권영식 이상식 함윤식 성봉모  
한준안 최현옥  
- 이상 54명

#### 교육대학원

정숙자 윤진수 이재구 박정렬  
장시윤 장영동  
- 이상 6명

#### 정보산업대학원

노경화 문준일 김봉근 정진식  
김명준 김종준 이정희 전영식  
오만식 이은종 한연희 김영수  
이수익  
- 이상 13명

#### 지역개발대학원

김두봉 김병욱 김영학 김외식  
김용규 김이영 김인탁 김성원  
김진근 김자복 김창호 김천관  
김철식 노봉식 노상진 박경식  
박서규 박성호 박영두 박위석  
박효길 배순칠 배태환 순병태  
신세관 신형우 심재연 안정원  
유재한 이강우 이강호 이경우  
이기종 이기종 이도형 이만희  
이무일 이수동 이율수 이장수  
이종근 장용삼 정병교 정영수  
조상복 조일태 죄 성 죄신섭  
한성률 한정관 홍봉식 홍창범  
황윤우 황선주 황보길근  
- 이상 55명

천년의 古都에서 색다른 가족휴가를!

## 꿈, 사랑, 감동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경주 보문단지내에서 유일하게

중탄산나트륨 온천개발 성공

### 중탄산나트륨의 효능

만성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장애, 근육통, 외상 후유증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

금년의 겨울골프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 겨울휴가여행!

졸업및 입학 축하여행! 은

관광, 글프, 온천욕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주조선호텔에서 더욱 편안하고

멋지게 보내십시오.

### 부대시설

- ◇ 36홀 국제규모골프장 ◇ 조선가든(숯불갈비, 냉면전문)
- ◇ 온천 사우나, 헬스센타 ◇ 한, 일, 양식당
- ◇ 대·중·소 연회장(10~1000명 동시수용)
- ◇ 농시동역시설(5개국) ◇ 커피숍
- ◇ 비즈니스센타 ◇ 카페일라운지
- ◇ 쇼핑 아케이트 ◇ 가라오케, 나이크클럽

### 주변시설

- ◇ 동양최대의 물레방아 ◇ 경주 월드
- ◇ 민속공예촌 ◇ 토산품점
- ◇ 싸이클코스 ◇ 조깅코스



K-Y-O-N-G-J-U C-H-O-S-U-N H-O-T-E-L & C-H-O-S-U-N C-O-U-N-T-R-Y C-L-U-B

경주조선호텔  
조선컨트리클럽

< 4면에서 이어짐 > ▲ 이홍남(60경제) = 100 ▲ 정운경(60국문) = 5  
▲ 김 우(51국문) = 1 ▲ 김정근(60경제) = 1 ▲ 소규천( ) = 3  
▲ 장대종(72경행) = 2 ▲ 이규성(68경외) = 5 ▲ 김준원(79경원) = 1  
▲ 윤석근(68연영) = 10 ▲ 윤호현(57경제) = 10 ▲ 이도희(69상학) = 1  
▲ 정호기(86한의) = 1 ▲ 김철규(86경우) = 5 ▲ 주연구(67행정) = 1  
▲ 송재운(83법학) = 1 ▲ 윤영호(87경원) = 5 ▲ 김익수(73전공) = 1  
▲ 사상철(62국문) = 1 ▲ 최병각(67상학) = 20 ▲ 오원섭(63법학) = 2  
▲ 김상기(70경영) = 2 ▲ 유부설(63농생) = 20 ▲ 민병우(85경원) = 1  
▲ 권유원(70경영) = 1 ▲ 문광식(64경제) = 1 ▲ 한기남(59화학) = 3  
▲ 박평도(65상학) = 1 ▲ 유현목(49문화) = 100 ▲ 정낙석(65경제) = 5  
▲ 김정인(83행위) = 7 ▲ 김형민(75경행) = 1 ▲ 신우철(66정외) = 100  
▲ 조정현(68경행) = 1 ▲ 신계식(57국문) = 1 ▲ 대구(053) 254-5936 · 광주(062) 522-2211 · 대전(042) 534-4551  
▲ 전천익(68국문) = 1 ▲ 박창희(63정외) = 3 日限)

예약·문의: 경주(051) 745-7701 · 서울(02) 753-0300 · 부산(051) 246-9219

대구(053) 254-5936 · 광주(062) 522-2211 · 대전(042) 534-4551

 대우가족

# 세계시장을 제패할 대우 1등상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 집념어린 기초과학 투자

뿌리가 튼튼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기초과학이 발전해야만 창조적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우는 12년 전부터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왔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이정표로 자리잡은 대우학술총서가 지난해 이미 200권을 넘어섰으며, 해마다 30~40명의 연구인력들이 기술선진국에 파견되어 '81년 이후 현재까지 500여명이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했거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의 국내외 대우기술연구소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신기술 창조를 위한 집념어린 노력과 정성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세계상품'으로 탄생하는 대우 1등상품

대우의 기초과학 투자는 이제 '대우 1등상품'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포충각 방식의 공기방울 세탁기와 절대우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무인굴삭기, 꿈의 운송수단으로 불리우는 자기부상열차, 한국 기계공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컴퓨터체어 방식의 공작기계, 팩스 결용의 노트북 PC, 칼라 노트북 PC,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세계 1등상품'을 목표로 한 최고의 제품들이 하나 둘씩 대우인의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기술력의 절대우위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

'기술대우'의 역사는 1992년, 보다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초기술 특수대학원인 '대우고등기술연구원'의 설립과 거대한 종합연구단지의 조성, 일본의 최첨단 전자통신 연구단지인 '소프트 리서치 파크(Soft Research Park)'에 세워진 연구센터의 본격 가동, 미국·영국·프랑스 등 기술선진국과의 기술 네트워크 구축 등이 올해 기술력의 절대우위를 향한 대우의 새로운 발걸음들입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탁월한 마케팅 능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선도해온 대우는 이제 우리만이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으로 또 한번 세계무대에 우뚝 설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거래가, 나아가 세계의 시민들이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

# 대우가 있습니다.

